

원전

급물살 타는 대미 투자, 언론 보도 정리

유틸리티/건설

Analyst 문경원, CFA
kyeongwon.moon@meritz.co.krRA 이동석
dongseok.lee@meritz.co.kr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9월 발표 가능성 높음

7일 당정협의를 계기로 다수 언론이 텍사스 엔시날 가스발전(6.3GW)을 대미투자 1호로 보도. 9/18(현지) MOU 서명, 발표 전망. 산업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확정된 바 없음"이라 밝혔으나, 이는 절차상 미확정 표명으로 해석. 가스터빈의 두산에너지빌리티, HRSG의 비에이치아이 수혜 기대. 복합화력 5GW분 HRSG 발주는 2단계 이후(2030년 이후) 순차 진행되는 구조. 2025년 11월 한미 전략적 MOU에 제3국 대비 한국 업체 우선 조달 조항 포함

Meritz Research 2026. 9. 8

서서히 걷히고 있는 '미국 원전 수출'의 그림

머니투데이는 단독으로 9월 18일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 추진' 방향성이 동반 발표될 것이라 보도. 이후 '총 1,300억달러, AP1000 6기 + APR1400 2기' 후속 보도. 단, 노형 배분과 금액 규모에 대한 세부 내용은 언론사마다 상이

언론 보도 전반이 이번 발표를 '프레임워크'('추진을 모색한다' 수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 이데일리리는 정부가 1,200억달러를 합의문에 못 박지 않으려 하며 개별 원전은 사업성, 한국 기업 참여 조건을 따져 별도 결정한다고 보도. 당사는 실제 계약까지 1)노형 주도권(AP1000 vs APR1400), 2)리스크 분담 구조, 상업성 검토 등 장애물이 남아있다고 판단. 그럼에도 '프레임워크'만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 현대건설 등 원전 전반의 투자심리에 긍정적. 특히 APR1400이 포함될 경우 한전기술에 주목

이에 더해 한국일보는 단독으로 9월 18일 한국의 Westinghouse 지분 투자도 공개될 것이라 보도. Westinghouse는 비공개 IPO 진행 중. 지분 인수 검토 자체는 가능성 높으나, 지분율, 가격, IP 조항 연계까지 구체화되기엔 시간이 남았다고 판단. 지분 확보가 지재권 이슈를 자동 해소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

단기적인 이벤트 플레이, 혹은 아예 확실한 종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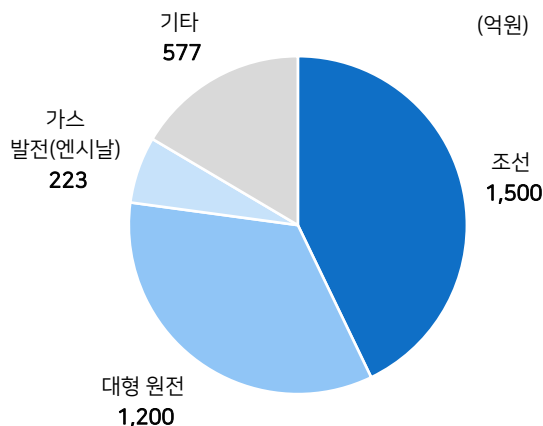
9/18 대미투자는 트럼프 직접 발표 개연성 높음. 일본 1호 프로젝트를 트럼프가 직접 발표한 선례, 중간선거 두 달 전이라는 정치적 유인이 근거. 다만 내용에는 불확실성이 있음. 1)핵심 사항에서 언론 보도 간 편차가 크고, 2)정부 공식 입장은 '미확정'. 3)본 계약이 아닌 프레임워크 문구 수준의 발표. 따라서 투자 전략은 크게 두 가지. 1)9/18 전후 단기 이벤트 플레이, 2)혹은 가스발전까지 포함해 발표 내용과 무관하게 수혜가 확실한 밸류체인(두산에너지빌리티 등)에 집중이 필요

표1 대미 투자 관련 9월 7일 보도 요약

명제	보도 언론사	언론보도 내용 종합	산업부 보도설명자료 (9/7, 정책브리핑 게재)
9월 18일에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이 대미투자 1호로 발표	이데일리, 헤럴드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국민일보 등	9/7 운영위가 223억달러(6.3GW) 엔시날을 1호로 의결, I-SPV 운영계약안도 의결 - 사업비 168→198/200→223억달러(미국 250억 요구)	"금일 보도된 대미투자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절차 및 미측과의 협의를 거쳐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이 대미투자 일환으로 원전 8기 건설을 추진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등	- 미국이 8월 포괄 프레임워크와 1,200억달러 원전 투자 제안 - 엔시날까지 포함하면 2,0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상당 부분을 포괄하는 것 - 당정협의 참석 여권 관계자 "8기 건설 추진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을 합의문에 포함"	"韓·美 양국은 대미투자 원전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전 투자는 9월 대미 투자에 같이 발표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한국일보, 아시아경제	9/18 MOU 서명 시 프레임워크 문구로 포함 전망 - 개별 원전 투자는 별도 결정 9/7 운영위 의결에서는 원전 제외	위와 동일
APR1400 2기 포함 (AP1000 6기 + APR1400 2기)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중앙일보	- 머니투데이만 "6기 AP1000, 2기 APR1400, 총 1,300억달러" - 한경 "장소와 규모 미정", 이데일리 "노형, 주도권 쟁점 엇갈림"으로 내용 불일치 8기 중 총 4기(한국형 2기, 미국형 2기)를 먼저 수행 예정	위와 동일
한국이 WEC 지분 인수를 추진 중	한국경제, 한국일보 등	8/24 한경이 미국의 지분 공동인수 제안과 한전 검토 보도 9/7 한경 "협상 테이블에 올려 논의 중"	해당 설명자료 없음
WEC 지분 인수가 9월에 발	한국일보 단독	한국일보만 "1호 발표 시 WEC 지분을 공개 예정", 한경은 "협상 급물살" 정도로 보도	해당 설명자료 없음
알래스카 LNG도 9월에 포함	조선일보, 뉴시스 등	알래스카 LNG에 원칙적으로 참여를 추진한다는 내용 포함	해당 설명자료 없음
9월 발표는 트럼프가 직접 발표	한국일보 / 타 매체는 '서명·발표'로만 표기	MOU상 미국 대통령이 프로젝트 선정권자. 중간선거 앞둔 정치적 유인	해당 설명자료 없음

자료: 언론 종합,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언론 보도에 기반한 대미 투자 비중



자료: 언론 종합,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 문경원(는) 현대건설 기업설명회에 해당 기업의 일부 비용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서 해당 추천 종목을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